

평창군시설관리공단, 제3기 주니어보드 출범

✎ 이진화 기자 | ⓒ 승인 2026.03.11 13:08

제안을 넘어 실천으로, 공단의 내일을 기획하다"

(평창=국제뉴스) 이진화 기자 = 평창군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최순철)은 11일 본청 사무실에서 '제3기 주니어보드(Junior Board)' 발대식을 개최하고, 공단 혁신을 이끌 9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



▼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, 제3기 주니어보드 발대식 임명장 수여

주니어보드는 현업 구성원이 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 회의체로, 2024년 제1기 출범 이후 올해 3기를 맞이했다. 이번에는 근로자대표 등 근로자 3명을 포함한 총 9명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선발됐으며,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한다.



▼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, 제3기 주니어보드 출범

제3기의 핵심 변화는 '강력해진 실행력과 홍보력'이다. 기존의 자유 제안 방식에서 공단 중점 혁신과제 5건 이내를 선정해 집중 실행하는 체계로 전환했으며, 대외 홍보 활동을 핵심 미션으로 새롭게 편입해 월 1회(연 12건) 보도자료·SNS 콘텐츠를 직접 기획·제작하게 된다. 또한 혁신동아리와 'Twin-Track' 체계를 구축해 연구 성과를 실행·홍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.



▼사진=평창군시설관리공단, 제3기 주니어보드 제1차 회의

발대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3개 분과(디지털혁신, 조직문화·HR, ESG·상생)를 편성하고 A·I·RPA 업무자동화, ESG 실천, 지역소멸 대응 등 중점 혁신과제 후보를 배포했다.

최순철 이사장은 "주니어보드가 제안에서 끝나는 혁신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행형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"며, "젊은 구성원들의 열정이 공단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"이라고 격려했다.



이진화 기자 musicjin123@naver.com
